

#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5년간 128억

2017년~올해 6월 총 227건 발생... 5년동안 72.5% 증가

민주 윤준병 의원 "필요 어업인에 지원토록 관리 강화 시급"

어업·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부정수급(부당수령)이 지난 5년간 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멍 뚫린 수산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정책자금 지원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전체 수산정책자금에 대하여 총 227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금액으로 환산하



면 128억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건수 기준)을 보면, △2017년 51건(45억4,500만원), △2018년 20건(27억8,900만원), △2019년 4건(1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 53건(26억7,100만원), △2021년 88건(22억)으로 증가했다. 특히, 작년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대비 7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정책자금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어업경영자금 부정수급이 120건, 부정수금액 53억 3,900만원으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64건(31억6,600만원),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자금 14건(5억8,100만원), △스키어귀촌 정착지원자금 11건(4억7,300만원),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10건(32억400만원), △부채대책자금 5건(7,800만원), △피해복구자금 3건(3,200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으로는, 지침위반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78건(4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도초과 57건(31억1,100만원), 타직업 보유 32건(16억2,200만원), 시설패각(13억4,800만원)·사업포기(11억5,400

만원) 각각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의 본 취지는 어업인과 수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수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최근 5년간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금액이 128억원에 달하고 있어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어업인·수산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원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도 힘써 '구멍 뚫린 수산정책자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가동

전북도의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명연 의원, 부위원장에 전용태 의원을 선출했다.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30일, 제3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총 11명의 의원으로 강태창(군산), 김병지(전주1), 김성수(고창), 나인관(김제), 문승우(군산), 박정규(임실), 서난이(전주9), 유수봉(완주), 이명연(전주10), 임승식(정읍), 전용태(진안)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지난달 30일부터 2023년 9월 29일까지 1년이다.

전북 균형발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명연 의원(전주10)은 "균형발전은 지역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전북의 핵심과제"라며, "특위활동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현안 문제에 대해 시의성 있게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수 기자



지역소멸대응 위한 문화사업의 과제

## 장애 예술영재들도 한예중서 전문교육 받나?

민주 김윤덕 의원, '한예중 설치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 예술 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예중 설치법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제정 취지에 대해 "한예중은 우리나라 전문 예술인재 양성 및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한 만큼,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적인 예술가 양성이 가능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세계적 예술대학으로의 도약은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기여 강화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예중은 최근 세계 주요 콩쿠르(미국 댄 클라비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등)에서 국제 연주자들이 연달아 우승하며, K-

래식의 높아진 위상과 한국식 영재 교육 시스템'은 한 예 중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예중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의 지위에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르면 '각종학교'는 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으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 및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석사)취득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해외유학생 유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김 의원은 "실제 한예중 졸업생의 타 대학 및 외국으로의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2012~2021) 국내의 타 대학원 진학사에는 총 205건으로 이중 94명(45.9%)이 해외 유학

을 하러 간 것으로 파악됐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외국 진학사에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예중은 국립 교육기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교육부의 관리·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일반대학과 교육기관이 하지 못하는 사회적 의무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예술영재를 정원으로 선발하여, 장애인도 창작자로서의 자아역구 실현의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장철민 박상혁 강선우, 이하영, 정준수, 조승래, 김수흥, 김성주, 김영진, 민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경수 기자

## 박용근 도의원 "세립이법 시행 전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지난달 30일 제3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에 따라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상시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8년 청주에서 세 살배기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 28일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통학차량 운행 시 동승자 의무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 "지역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하라"

김동구 도의원, 결의안 발의

전북도의회는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G까지 겹치며 민생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조2,322억원이던 지역상품권 예산을 올해 6,000억원으로 감액한데 이어 내년 도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국 282개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면서 민생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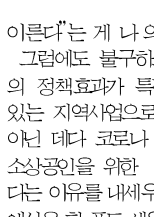
감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월평균 87만5천원 증가

한 반면 비가맹점은 오히려 8만6,000원이 감소했고, 지역화폐의 전국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7조원 가맹점 수익의 증가액은 2.0조원에 이른다는 게 그의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화폐의 정책효과가 특정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 지역사업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데다 코로나 국면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겠다

이에 김 의원은 "당장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사리자녀 지역화폐 할인을 줄여줄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수 기자



황영석 도의원 "건강보험지원 한시규정 삭제" ... 건의안 발의

황영석 전북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6%)를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최근 15년간 32조원 정도 덜 지원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한시 기간을 삭제하고, 이를 명확히 개정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 6·1 지선 선출직 공직자 재산신고액 공개

김관영 도지사 29억1814만5000원

서거석 교육감 -11억506만1000원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김관영 도지사의 재산이 29억원인 것으로 신고됐다.

정부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지사의 재산 신고액은 29억1814만5000원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신고한 27억6409만1000원보다 1억5000여만 원 넘게 늘었으며 이는 김 지사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신고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자신의 재산을 -11억506만1000원으로 신고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전국 교육감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거석 교육감은 6억2000여만원 상당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채무가 17억3000여만원인 것으로 공개됐다.

도내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기업가 출신인 최경식 남원시장(216억978만8000원)을 신고해 신규 등록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밖에 유희태 완주군수 28억6566만1900원, 심덕섭 장수군수 10억2722만1800원, 최훈식 장수군수 9억5668만원, 이학수 정읍시장 7억5254만1900원, 최영일 순창군수 3억7049만1500원, 우범기 진주시장 3억681만6000원, 정성주 김제시장 2억9579만1800원 순이다.

정부가공직자윤리 재산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전북도 공직자윤리위 공개대상은 전북도 누리집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 남원시의회, 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정례회 일정 마무리

남원시의회(의장 정영기)는 지난달 30일 △2021 회계연도 시 결산승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부본건 심사 등을 진행했고 제283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30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 2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과 함께 필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액 250만 농어업인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해 CPTI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정영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연초 계획한 사업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미진한 사업을 꼼꼼히 챙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군의회 정례회 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최종 의결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지난달 2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285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촉구했으며,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등 상정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9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의 심사결과 요구액 5,728억8,075만 0,000원 대비 0.32% 감액된 5,708억 3,675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주요 사업장 방문 및 무진장 여객 농어촌버스 탑승 등 현장행정을 통해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무주군의회는 직접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국민의 삶 안에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군의회 정례회 폐회... 추경 5550여억원 확정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시작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영실수 임대농장 조성, 비료 가격안정 지원, 보통재 생태축 복원 예산을 포함한 2022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550여억원을 확정했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효과가 낮거나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3건, 7억2,000여 만 원은 삭감했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에 대한 치질없는 집행은 물론 추진 중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단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진안군의회보다 적극적이고 의정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 장수군의회 정례회 폐회... 쌀값안정 대책 촉구 결의

장수군의회는 지난 30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액 대비 492억원이 증액된 4,891억원으로 의결하고 15일간 이어진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경비의 경우 사전 시의적절한 예산편성과 행정절차의 조속한 시

행 등을 통해 예산의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설한 재정운영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물론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규명하며 정부에 대해 쌀값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 의원의 발의로 채택했으며, 장정복 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한 장수군의 지역별 고령 발전을 위해 지역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수=교판호 기자